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2024. Vol. 1

2023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 2차년도 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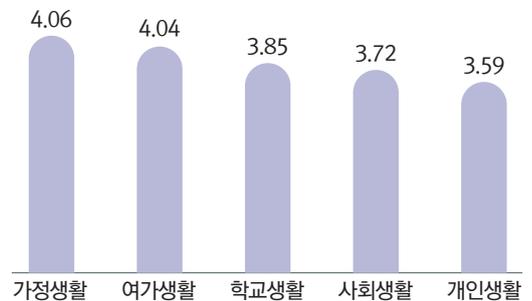
임태원 (교육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요약 Summary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비전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2018년부터 학생생활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3년에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2022~2025년)의 2차년도 조사 및 결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총 6,495명(초등학생 2,058명, 중학생 3,075명, 고등학생 1,362명)이 조사에 참여함.

○ 학생의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가정생활(4.06)²⁾ > 여가생활(4.04) > 학교생활(3.85) > 사회생활(3.72) > 개인생활(3.59)' 순이었음.

▮ 학생의 생활영역별 만족도



○ 가정생활에서 학생들은 부모(보호자)의 정서 지원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업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임.

○ 여가생활에서 학생들은 주로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방식으로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스마트폰/휴대전화를 사용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유튜브 등),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과반에 해당함.

○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생님에 대해서도 '교과 전문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자신의 학업태도에 대해서는 수업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나, 질문하거나 예·복습하기 등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생활에서 학생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시민의식과 평등의식에 관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음. 또한 우리나라(사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육'의 수준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함.

○ 개인생활에서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머니, 친구·선호배와 주로 상담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 한편,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건강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감정 표출이나 기분전환활동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임.

1) 본고의 내용은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수시연구과제로 수행된 「인천광역시 학생생활종합실태조사Ⅱ(2차년도)」(임태원)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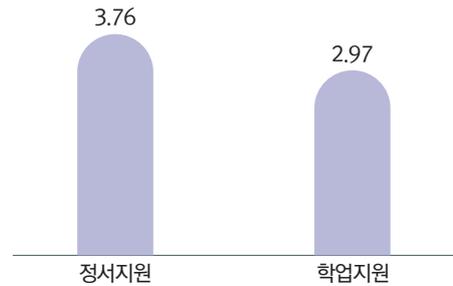
2) 괄호()안의 숫자는 5점척도로 계산한 평균을 의미함.

조사 결과 Results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 인식은 높은 편, 학업지원은?

- 가정생활에서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과 학업지원 실태에 대해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함. 정서지원의 평균은 3.76으로, 학생들은 부모(보호자)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믿어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으로 정서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한편, 학업지원의 경우 평균이 2.97로 정서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관리에는 부모(보호자)가 관심을 가지나, 가정 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직접적인 학습 및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부모(보호자)의 정서지원과 학업지원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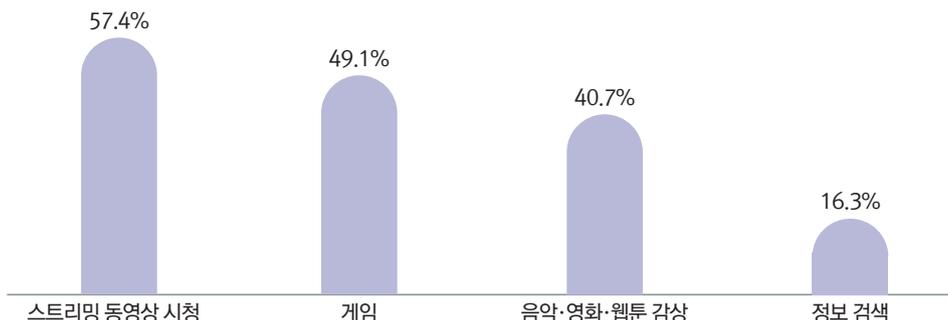
도서관과 서점에서 꿈을 키우고, 극장에서 상상력을 키워요.

- 연간 문화활동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도서관이나 서점 방문’을 연 10회 이상 참여한 학생 비율이 25.2%로 가장 높았고, ‘극장에서 영화 관람’이 연 10회 이상인 학생 또한 19.0%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반면, ‘운동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 관람’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7.0%로 가장 높았음. 또한 ‘과학관이나 박람회 관람’의 경우에도 36.7%의 학생이 ‘전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다양한 경험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확인됨.

스마트폰은 동영상 시청과 게임을 위해서 사용, 의존은 하지 않아요.

- 스마트폰/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6,383명 중 총 3,659명(57.4%)의 학생이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 스마트폰/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게임(3,136명, 49.1%), 음악·영화·웹툰 감상(2,598명, 40.7%) 순으로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응답 빈도가 높았으며 정보 검색을 위한 사용 비율은 16.3%로 가장 낮았음.
- 스스로 얼마나 기기 사용에 의존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평균 2.29로 ‘의존하지 않는 편’이라는 인식이 나타남.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이나 고립감, 심심함을 느끼는 것은 덜하지만 점차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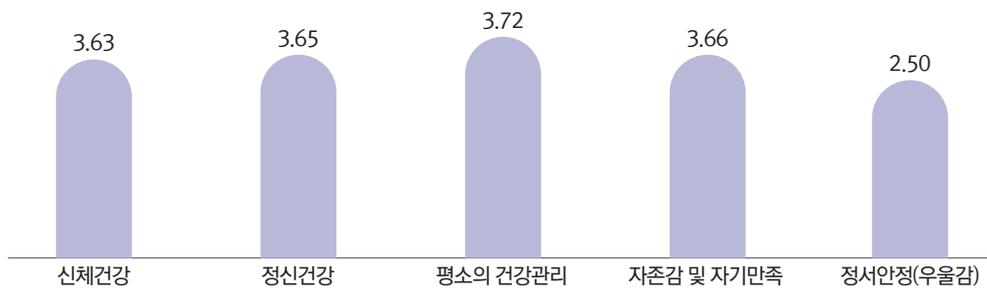
■ 스마트폰/휴대전화 사용 목적(하루 1시간 이상)



나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요!

-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신체건강은 ‘건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368명(36.5%)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임. 차순으로 ‘보통이다’ 2,062명(31.7%), ‘매우 건강하다’ 1,294명(19.9%)으로 비교적 자신의 신체건강이 보통이거나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많았음.
- 학생들의 자존감과 정서 안정을 묻는 문항에서는 ‘자존감 및 자기만족(3.66)’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감정 표출이나 기분전환 활동을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각 3.57, 3.65)이 산출되어 학생의 정서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성이 확인됨.

학생 개인생활의 주요 문항 평균



결론 Conclusion

- 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학업’과 ‘진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음.
-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생활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강화해야 할 것, 지원해야 할 것, 보완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됨.
-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도모하는 현시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지원을 토대로 ‘자신이 잘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더 이상 학업과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시도가 필요함.

인천교육 연구브리프는 정책연구 결과 및 정책 동향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는 교육정책연구소 발간자료입니다.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2024. Vol. 1

발행일 2024. 3. 29.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문의처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 TEL 032.420.8206, <http://ice.na.to>